



미국, 일본, 대만의

첨단산업입지를 다녀와서

9월초에 열흘간 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첨단 산업입지 및 유틸리티 현황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혼자서만 알고 있기에는 아쉬워서 통상산업가족을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입지 및 UTILITY』 용역의 일환으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미국, 일본, 대만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1. 들어가기

먼저 96년 180억불 수출로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한 반도체산업의 특징을 알아보자. 반도체는 집적도가 2년마다 4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3~4년이다. 투자결정시점 이후 1~2년 이내의 단기간에 상품이 출하되어야 승부를 걸 수 있다. 일반적인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의 컨셉으로 접근은 곤란한데도 우리 정부의 반도체산업을 위한 용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는 일본식 외래어임) 지원이 원활히 되지않아 운영하기 힘들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글지의 대기업군인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는 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정책을 함께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첨단산업유치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미흡한가를 보여주고 싶어했다.

우리 일행은 10명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 기업에서는 LG반도체, 삼산전자, 현대전자, 반도체협

회, 우리부는 나와 관련 부서 사무관으로 구성되었다.

2. 텍사스에 SAS(Samsung Austin Semiconductor)의 기발을 쫓고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왜 미국으로 진출하였는가?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현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 중 사업하기가 어디가 나은가? 이성환사장은 그래도 한국이 낫다. 미국으로의 진출은 좋아서 하는것이 아니라, 덤핑문제 해소, 신경영기법의 체득 등을 위해 진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란다. 미국은 엄격한 법 집행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기업이 환경오염을 시키면 미국에서는 그 기업은 끝장이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융통성(?)이 있다. 인력관리면에서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쉽다. 언어, 풍습이 다른 외국인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하는 것이 쉽다. 기타 외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문화적 쇼크가 큰가? 삼성오스틴반도체의 이성환 사장은 해외진출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반덤핑관세 부과 등 통상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해외경영에서 선진 경영, 생산의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고국 기업의 세계화에 활용하고자 한단다. 고국의 산업공동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뭇뭇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스틴은 Work

Spirit가 강한 도시로서 노동의 권리가 노동운동의 권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일할 권리를 더 존중하는 풍토란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설립 자체는 조합의 자유라는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공장으로 향하는 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두 길중에서 한 쪽은 노동조합원이 출입하는 길, 나머지 한 쪽은 비 노동조합원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과업을 하면 노동조합용 길을 연장하여 뒷출입문으로 통하여 비 노동원과 출입자체를 다르게 하여 상호 마찰을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것이란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현지에서 채용한 미국인이 제안해서 채택하게 된 것이란다.

삼성엔 미국 내에서 왜 텍사스 오스틴시에 부지를 잡았는가?

고급 인력의 채용이 용이해야 한다. 장비 조달 및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기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오스틴에는 공과대가 강한 University of Texas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전자업체가 인근에 있다. 따라서 전자산업 인력의 채용이 용이하고 이들이 취직을 하는 경우에도 제취업이 용이하므로 회사 지원자들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 전자업체가 모여 있으므로 제조장비의 조달 및 보수가 용이하다. 삼성반도체 공장유치를 위해서 미국내 6개주 20개도시가 후보지 유치경쟁을 벌였단다. 삼성측에선 오레곤, 달라스, 오스틴, 포틀랜드 등이 좋은 입지로 보고 있었다. 삼성측은 20개 도시 입지여건 손익계산을 해본 결과, 10년간 투자 비용이 40억불±2억불로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기업유치를 맡고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임 시장이면서 현재 기업유치 책임을 맡고 있는 Graeber Simmons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각 후보지 유치당국은 주 법률이 위임하거나 주별로 각기 다른 여건을 이용하여 손익계산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켰기 때문이란 다. 즉 지원 또는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 그에 따르는 기업의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한다는 것이다.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등 20개 후보지중 부지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곳이 있었는데 종합 평가를 해보면 결과

적으로 좋은 부지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즉 유틸리티의 지원과 세금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혜택은 고급 인력수급 등 다른 요소를 포함해서 비교해본 결과, 결정적인 입지 선정요소는 아니었으며, 삼성은 고급인력의 수급과 인근의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오스틴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삼성이 시에서 떨어져서 땅 값이 싼 곳에 공장을 건설해도 동일한 지원을 할 것인가?

우리가 출장을 간 여러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였다. 시청관료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하였다. 아니라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잠시 돌아가자. 이 질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공장이 위치해야 하는데 현재의 수도권 공장 증설은 억제되고, 기존 공단 등으로는 수용할 능력이 없다. 각 반도체회사는 각자 결정할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땅 값이 싸면서 수도권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한 곳은 전력, 공업용수, 도로 등 인프라스트럭처가 정비되지 않은 곳이다. 이쯤해서 기업은 아우성이다. 이렇게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외국은 부지를 거의 공짜로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면 지원이 안되고 있다. 이런 식이다. 산업단지공단 등의 반대입장은 이렇하다. 왜 하필이면 기존 공단을 놔두고 하필이면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가는가? 기존 공단이라든가 부지가 좀 비싸도 산업하부시설이 잘 정비된 곳으로 가라는 것이다. 설명이 길어졌다.

시청과 삼성에서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았다.

공사와 관련하여 1주일에 한 번씩 시청의 인허가 및 공사 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법, 건축법 등에 근거한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합격이 되면 현장에서 삼성에 바로 결정 통보한다. 일명 FAST TRACK제도로써 공사 허가기간이 일반적 인 경우 160일이 소요되나 동 제도로는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여 인허가를 받

고, 이후에 공사를 착공한다. 미국은 공사진행 중에 단계별로 준 인허가를 한다. 그리고 공사준공 전에 공장가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우리와 비슷하기는 하나 현자의 융통성과 재량이 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미국에서의 공사는 광대한 황무지를 개발한다는 개념인 반면에, 우리는 좁은 국토로 인하여 모든 것은 금지로부터 시작되어 허가를 통해 완화된다. 미국은 모든 것이 자유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을 금지로부터 시작하는데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 일행은 이러한 차이에서부터 사회문화적 차이까지를 논의하였다. 그곳은 공무원이 프로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고, 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달로 인해서 투명한 행정과 선거를 의식해서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다. 텍사스의 TV 채널 중의 하나는 하루 종일 시 행정과 관련된 각종 회의, 공청회 등을 방송하고, 개인 또는 단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적 사고는 맑은 샘물과 같은 사회적 환경하에서 생기지 않을까 싶었다.

이러한 토론과정에서 의견이 들로 나뉘어졌다. 그들의 그러한 합리적 정신을 배우자는 것이고, 다른 한쪽의 의견으로는 양국간 국토 사회적 시스템,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이러한 이질적 문화를 그냥 놔두고서 합리적 정신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우리식대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과 팽팽히 맞섰다. 이러한 시끄러운 토론으로 인해서 숙소로 돌아오는 미니버스에서 눈을 부치고 부족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3.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머리에 꽃을 꽂고

내 책상 앞에도 붙여 놓은 적이 있는 동경의 대상인 실리콘벨리 맵. 그렇게 궁금하던 실리콘벨리로 향했다. 산호세 시청 경제부관리를 만났다. 전체 부지는 2억7천만 평이었다. 우리는 몇 번을 계산을 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활한 면적이었다. 이 곳이 전자산업의 메카로 성장한 이유는 산호세의 배후에 스펀포드데라이 있고, 여러 전자업

체로 인한 이취업이 용이하고 기후가 따뜻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업체가 많이 몰리다가 보니까 부지 값이 올라서 종사자는 외곽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한다. 따라서 교통체증으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정도 소요되는데 정말로 우리는 저녁 이동때 트래픽제에 걸리고 말았다.

우리나라 같으면 최첨단 산업단지에 손실이 크므로 정부에 대해 이를 해결해달라고 할텐데 그런 요구가 없는가?

산호세시청 관료 Joseph R. Hedgcs가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요구한 기업은 없었다. 시청에서 알아서 해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도로를 넓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로를 확충하는 비용에 대해서 시예산이 부족하여 최근에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왔었다.

우리는 지자체가 정착되지 않은 중앙집중적 권력체제하에서 모든 것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예산의 부족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는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상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원인자인 사용자가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통하는 사회였다.

우리는 시청에서의 만남을 끝내고 실리콘벨리 투어를 하기로 하였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전자회사의 간판을 보니까 반가웠다. 대부분이 반도체 판매법인들이었고, 현대가 일부 연구법인을 겸하고 있었다. 국내 중소기업이 더 많이 진출한 것을 알고 있는데 눈에 띄이지가 않았다. 인텔본사를 스쳐 지나갔다. 펜티엄칩, intel inside, 앤더글로브회장... 등등이 떠올랐다. 한날은 글로벌회장이 늦게 출근을 했는데 애를 먹었다. 왜냐하면 회장 전용 주차공간이 없었다. 역시 미국이었다.

저녁에 현지 분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화제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무역적자,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한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현대전자 유국장 상무가 그 중 중요한 성장요인은 유연성이라는 어느 보고서를 인용했다. 금융의 유연성, 기업의 퇴출과 진입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현실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단의 노성호 박사가 반박했다. 그럼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유연성이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데 또 시끄러웠다. 일행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

4. 전자제국 Nippon

다음날 우리는 일본 나라다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청사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미국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자유가 많은 나라가 그런 자유를 제한하다니... 대단한 나라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한 금연제제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았다. 담배인삼공사가 공기관이고 세수가 줄어들므로 금연제제가 더욱 어려운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이 어쩔 더 강력한 금연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급자는 로비가 강한 대기업이어서 금연제제가 어려웠다. 미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와 국가가 금연을 추진하였으나, 우리는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금연을 결정하면 결행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일본의 첫인상은 차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우리나라와 흡사하다는 느낌이였다. 몇 년후 한국의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통산성과의 약속을 주선한 대사관의 박천진과장과 함께 통산산업성 환경입지국과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공단에 해당)를 방문했다. 일본의 첨단산업입지정책은 83년 테크노폴리스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 학술공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조성추진하고, 지역에 첨단기술 도입과 기존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시켜 기술을 핵으로 지역경제의 자립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통산성 환경입지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26개 단지가 조성되어 자금과 세금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부 관련사항은 공단의 출장보고서 『첨단산업입지/유틸리티실태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에너지 관련 사항은 담장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국제 자료 구입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통산성 바로 옆길에 있는 정부간행물센터에 갔다. 눈에 띄이는 책이 있었다. 자원에너지청이 발간한 자원에너지육법, 통산산업성이 발간한 통산육법. 시행령까지 나오는 관련법 모음집이었다. 사건사고가 터질 때만 일본에 연락해서 무슨 내용 보내라고 하는 것이 싫어서 사기로 했다. 좀 비쌌다. 통산육법이 1만엔(8만원).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부 자료실에는 그런 도서를 사기 위한 예산은 없단다. 그래서 내 돈을 주고서 샀다. 어차피 개인적으로 갖고 싶었던 책이었으므로. 지금 그 책은 사무실 내 책상 머리에 놓여 있다. 다음 공식을 생각해 보면 이 책이 유용하리라고 생각해 본다.

우리가 필요한 정책아이디어나 법령(안) = 일본 통산 육법 - 우리 통산부 관련 법령

OECD의 Network인 OLIS를 해매어도 제대로 된 자료는 없구나. 그래서 인터넷의 OECD홈페이지를 뒤져본다. 결정적인 통계에 접근하는 순간 유료Publish 메뉴로 간다. 돈내고 사서보라는 것이다.

다음날 우리나라의 서울시청에 해당되는 도쿄도청을 구경하러 갔다. 몇 년전 새로 지어 도쿄의 명물로 자리잡은 도쿄도청. 보이는 사진은 도청의 내부 천장의 일부이다. 벽과 엘리베이터도 같은 문양이다. 바로 IC칩과 리드선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자산업에 대한 일본인의 불타는 정열을 읽을 수 있었다.

아키야바라에 갔다. 면적은 잘 모르겠으나, 상점이 연이은 대로 길이는 우리나라의 용산전자상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였다. 냉장고, TV 등의 가전제품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Cellular Phone,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게임소프트웨어 등 정보, 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외제 전자제품으로는 면도기, 순간 체온측정기 등이 있다. 공항면세점 등과 비교하여 가격이 싼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 아기를 위해 체온을 1초에 측정하는 순간 디지털 체온계를 샀다.

삼성전자의 홍순섭부장이 외교적으로 말쑥 많은 야스꾸니신사를 가자고 했다. 그 현장을 보아야지 국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거들었다.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해당되는 그 곳은 2차세계대전 당시의 전사자의 위패가 있다. 우리가 갔을 때 신사 옆에 간이 전시장이 연중 개장되어 있었다. 전장의 그

림과 가미가제의 각종 장비가 전시돼 있었다. 나는 가미가제가 비행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뢰를 타고 적함에 돌진하는 가미가제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은 일본전범(그들에게는 성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과 그 후에 죽은 일본여성과의 영혼결혼이 유행이란단다.

5. 대기업도 육성하는 대만

마지막 목적지인 대만으로 향했다. 타이페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대만인들은 우리나라 청량리 말 3등 야간열차칸 안에서 하듯이 돌아다니면서 대만인들끼리 술을 권하고 이야기를 하고 떠돈다. 우리만 빼고 전부 대만인 여행객으로 보였다. 대만인 수도인 타이페이에 도착했다.

다음날 우리는 백두옥 과장의 안내로 경제부 공업국을 방문하였다. 대만은 컴퓨터부품과 주변기기의 세계시장 점유 1위, 이제는 석유화학단지 조성과 반도체 제조를 시작하였다. 94년에 시작한 반도체, 미국, 일본, 한국이 석권하고 있는 반도체를 대만도 한단다. 그리고 화학공장도 세운단다. 왜냐하면 전자부품의 기초소재인 반도체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전자산업을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은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무한정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섬뜩한 느낌을 느꼈다. 외환보유대국에 걸맞는 경제대국의 힘을 느꼈다.

대만도 자본집약적인 대규모 투자기업을 하는가?

흔히들 한국 경제성장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제한된 생산요소를 제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소기업보다는 소수의 능력있는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왔다. 오늘날 산업의 불균형 성장, 부의 편재라는 업보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전력으로 오늘날 한국이 11대 경제대국 성장하게 되었다. 반면에 대만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중소기업이 산업의 기축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해왔다. 이러한 대만의 기업문화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 조선, 화학프랜트, 반도체 등 한국식의 대규모 투자산업은 안된다고 학자들은 논문에서 써내려 갔었다. 그리고 각종 산업정책보고서의 를 이루어왔다.

이제 그러한 논조의 글은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대만이 중소기업육성으로 축적한 역량으로 반도체와 화학산업을 한단다. 혼돈에 빠졌다. 세계적인 반도체저널인 DATA QUEST에서 세계의 반도체 시장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여서 공급 과잉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부문에서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만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대만의 투자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유도 질문을 하였다. 우리는 경제부관리로부터 대만의 반도체투자는 정책적 실수라는 한마디를 듣고 자위하고 싶었다. 그러나 경제부관리는 한마디로 넌센스라는 것이다. 대만의 컴퓨터 시장이 성장하는 한 반도체 시장은 커갈 것이고, 세계시장도 그렇다고 본단다. 가격 경쟁력은 걱정말란다. 우리는 이를 눈으로 확인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다음 날 신죽 과학공업원구를 방문했다. 대만은 추진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신, 전자공업, 반도체, 정밀기기 및 자동화, 항공, 고급재료, 특용화장품, 의료보건 및 오염방지 등 10개 업종군을 집중지원하고 있었다. 동 단지는 79년 설치관리법에 따라 조성된 6개 특별 첨단산업단지중의 하나였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부지는 분양이 아니라 장기 지가 임대로서 거의 공짜에 가까웠다. 전략적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공단측이 모든 건축 인허가를 직접 처리한단다.

우리의 대덕과학단지와의 차이가 있었다.

대덕에는 연구소가 중심이고 교육기관으로 KIST가 있다. 신죽에는 청화대학, 교통대학이 단지 안에 있었고, 그에 더하여 골목없는 공장이 있었다. 우리는 연구소 중심이고, 대만은 이에 추가하여 제조업체를 함께 유치하였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도 기업과 텍사스유니버시티가 함께 있었고, 실리콘벨리도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면서 배후에 스텤티포드가 버티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생산은 주로 산업공단에 위치해 있고 연구는 대학 또는 기업의 연구소가 하게되어 있어 연구와 생산의 고리가 약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와 생산을 동일 구역안에서 하게 할 수 있

을까, 그리고 동일 업종을 한 곳에 묶어 놓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외국과 같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재벌기업간의 경쟁 의식으로 인해서 같은 지역에 동일 업종이 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은 이직이 흔장처럼되어 있다. 실력이 있어 그 만큼 본인의 상품가치가 높아서 높은 가격으로 자신을 파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배신자로 또는 부적응자로 경시된다. 이러한 기업 문화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인력 시장에서의 유연성의 시너지효과보다는 평생 직장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밖에 없다. 여하튼 공단과 연구단지내에 생산과 연구를 연계하는 점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다.

대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반도체 판매 지사장들과 함께 저녁을 하였다. 주제가 중국요리보다 맛있는 안주였다. 삼성 반도체 지사장이 설명하였다. 대만인은 남에 대한 의심이 많다. 따라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 기업의 중심이다. 부인도 직장을 갖고 있다. 다른 NICS국가의 경우와 같이 여자의 취업률이 대단히 높고, 가정에서의 부인의 입김이 세다. 대만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여자들의 참여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남자 1명이 벌어야하는 돈을 대만은 부부 둘이서 나누어서 버니까 더 많이 벌 수 있다. 기후가 온난하고, 이모작이 가능하여 먹을 것이 풍부하다. 따라서 식단이 발달되어 있어 그 수가 많고 음식값이 싸다. 아침은 대충 때우거나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사먹는 스넥이 발달해 있어, 사가지고 직장에 가서 먹거나 한다. 점심도 사먹고 저녁은 가족단위로 푸짐하게 외식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로 가족 중심의 기업을 하다보니 유연성과 무한책임으로 인한 강점이 있는 반면에 그 이상의 종업원이 생기면 기업경영의 기법이 없어서 대단히 애를 먹는단다. 의심이 많기는 하나 합작정신이 강하여 한 번 외국과 합작을 하면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대만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합작을 하란다. 대만의 전자업체 그리고 신죽공단에 입주한 반도체기업도 대부분이 합작이었다. 법의 자의적 집행이다. 기업이 잘하는 경우는 좀 어렵더라도, 탈세를 하더라도 봐준다. 그러나 기업을 제대

로 하지 않으면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만 열심히 하면 잘 살게 해준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다. 기업가 정신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기업인을 존중한다. 외국의 노동 인력을 활용한다. 대만도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노동은 다른 동남아 국가의 노동력을 수입해서 쓴다. 반면에 대만인은 고급 업종에 종사한다.

대만과 중국은 어떤 관계인가?

대만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삼불정책(통신, 왕래, 통상)을 버린지 오래다. 그리고 홍콩이 반환되고 정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가장 큰 외국 투자는 바로 본토이다. 왜냐하면 말이 통한다. 문화가 같다. 이것이 가장 큰 투자여건이다. 그러면서 대만인은 우리나라에 충고한다. 대만이 중국 본토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왜 남한은 북한 인력을 활용하지 않는가?

대만도 독재체제에서 민주화하면서 민주화 비용을 치르면서 경제가 주춤거릴 것 아닌가?

답은 NO란다. 대만인은 정치보다는 경제에 관심이 많다. 국민당 자체가 재산이 많다. 국민당이 기업을 갖고 금융지원을 한다. 의심이 간다. 정경유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경제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기업은 하기 어려워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왜 대만은 그러하지 아니한가? 속제가 또 생겼다.

왜 대만은 지저분하게 사는가?

대만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외환보유고도 많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제품에서 일등하는 상품이 있다. 그런데 사는 집은 한심하다. 대만은 본토와 언젠가는 합칠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본토로 가는 날을 생각해서 잘해놓고 살지 않는단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세에 살더라도 어느 정도 문화적 생활을 누리면서 살지 않는가? 대만사람은 일생에 두 번 크게 돈을 써야 한다. 한 번은 결혼할 때 살 집을 장만하거나,

신부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보내서 신접살림 살이를 사오도록 한다. 그 비용이 신랑몹이다. 그리고 죽은후에 가족들이 짐을 본 후에 짐장이가 정한 날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 그래야 가족과 후세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며칠 만에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Happy한 경우고, 길게는 서너달씩에 걸쳐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적인 사람을 사서 곡을 해야하고 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짐장이의 말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회다.

6. 뒷물이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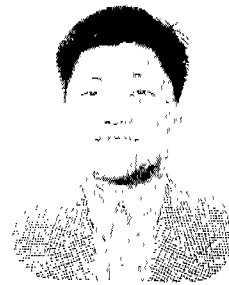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산업보다 우선하되 세금 등의 인센티브를 통한 차별적 지원이 있었고 Utility의 경우 사업주체가 국영, 민영에 따라 다르고 용지, 용수, 전력 등 종류에 따라 지원내용이 각기 상이하였다. 전반적인 지원내용은 미국은 주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오스틴의 경우는 삼성에 한해서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기업별 차등지원 혜택이 없었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동일한 척도로 지원이 되고 있었다.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비용/효용원칙이 지원컨셉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삼성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산출물이 많았기 때문에 오시틴시도 삼성에 대해 혜택의 폭이 컸다. 다른 유치기업의 경우에는 삼성에 준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는 고용 및 교육효과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란단.

전력에 관한 각국의 사례를 보고 들은바는 다음과 같았다.

전기요금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 대만보다 저렴했다. 배전선로의 설치는 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하에 수용가 부담으로 되어 있다. 다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지원 시책상 Utility설치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이 경우에 더 많은 반대 금부를 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도 전력사

업을 자자체가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한전의 전국 독점화에서 그러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어떤 기업, 어떤 지역, 어떤 산업을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자칫 특혜의 소지가 있고 누구나가 그러한 요구를 할 것이다. 더구나 재벌들이 하는 반도체산업이라는 특별한 산업을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차보조측면에서 볼 때 전기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히 Utility 지원만을 각국별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로 보였다. 그리고 공단의 전력간선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설비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았다고 보였다. 간접투자설비인 전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속제도 많이 풀었다. 그리고 또 속제가 많아졌다.



글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 유재열 서기관

1958년 6월 12일 대구 출생, 87년 5월 통상산업부 입사. 취미는 등산, 요즘은 집에서 Stepper로 대신한다. 변수현과의 사이에 승연, 지은의 두딸이 있다. 생활관은 "항상 깨어 있으라"